"텃밭 표심 잡아라" 민주 당권 레이스 본격 돌입

당대표 후보 광주서 첫 TV 토론회

송영길·홍영표·우원식 후보
"'수도권 표심'까지 영향 미친다"
'호남 인연' 강조하며 지지 호소

19일 오후 광주시 남구 광주MBC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송영길(왼쪽부터), 우원식, 홍영표 의원이 합동 방송 토론을 하기 전 손을 맞잡고 공정경쟁을 다짐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3인방이 19일 광주에서 열리는 첫 TV 토론회에서 맞붙으면서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돌입했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의 선택이 중요한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여 이들 당권 주자들은 호남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지지세도 넓히고 있다.

또한 이번 당 대표 선거는 1만6000여명(2021년 8월 전당대회 기준)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전국 대의원의 선택이 전체 판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광주·전남 조직을 모으기 위한 당권 주자들의 행보도 본격화 하고 있다.

지난 18일 예비경선을 통과한 홍영표·송영길·우원식 후보(기호 순)는 19일 오후 광주 MBC에서 열리는 호남권 합동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당의 운영과 쇄신 방안을 놓고 격돌했다.

이들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15일에도 출마선언 후 일제히 호남으로 달려갔다. 당의 심장부인 광주에 총출동, 당심 구애 경쟁에 나섰다.

19일 토론회에 앞서 홍 후보는 송하진 전북지사를 면담하고 전북도의회에서 출마 정견발표를 하며 전북 표심에 호소했다. 송 후보는 오전에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TV 토론회 후엔 비대면으로 청년들과 함께 '쓴소리 집중 경청' 회의를 진행했다. 우 후보는 광주의 한 상가에서 민생 간담회를 하고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들은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광주형 일자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 등 지역 현안 해결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흥에서 태어나고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송 의원은 광주·전남과의 인연을 앞세워 표밭을 다지고 있고, 광주형일자리 탄생에 도움을 준 홍영표 의원도 세를 넓히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정치권과 직간접적인 인연을 맺고 있는 우원식 의원도 주말과 휴일이었던 지난 17~18일 광주에 머물며 표밭을 다졌다.

전당대회가 가까워지면서 지역 정치권의 지지 성향도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의 당권 주자 지지 선언이 이어지면서 지역 정치권의 세력화도 이뤄지고 있으며, 세 후보가 팽팽한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또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에 다수의 당원이 몰려있는데다, 호남 표심이 수도권 표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당권 주자들의 호남 구애는 전당대회까지 더욱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한 국회의원은 "전당대회 투표에서 45% 배정된 전국대의원 1명이 80여만명으로 파악되는 권리당원(45% 배정) 40~50명과 맞먹는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전국대의원은 조직적인 투표를 하는 성향이 강해 누가 전국대의원을 많이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용섭 시장 "SRF 발전소 판결 존중…열병합발전소 조기 가동을"

이용섭 광주시장은 19일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열병합 발전소 가동 문제의 법적 장애가 해소됐기 때문에 더는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한국난방공사가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주 남구에 있는 시설(청정빛고을)에서 SRF로 만든 뒤 열병합 발전소로 반출하려 했지만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나주에서 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바람에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 때문에 청정빛고을에서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을 전량 매립하고 있으며, 매립장 조기 포화 등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5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상 피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나주시의 거부처분이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전남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68억원 투입

전남도가 올해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68억원을 들여 2만명의 이용자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1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올 한 해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서발달지원서비스,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30개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힘들어하는 청년과 성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심리지원서비스를 5월부터 신규로 시작한다.

서비스 이용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 사업에 따라 140%까지 가능하다. 이용자는 원하는 서비스 유형과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제공된 이용권인 바우처 카드를 활용, 월 6만~20만원의 서비스를 10~30%대의 본인 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을 운영해 종사자 교육·훈련, 맞춤형 컨설팅, 모니터링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우홍섭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도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계속 발굴해 도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K-FOOD 잘 나가네

美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 인기
전남 특식품 10번째 수출 선적

전남도가 미국 온라인시장인 아마존에 개설한 전남 브랜드관이 9개월 만에 10번째 수출 선적을 하는 등 한식(K-FOOD) 전문매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전남도는 19일 "광주 aT 비축기지에서 미국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에 입점한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 선적식을 했다"고 밝혔다. 수출물량은 14개 기업 29개 제품 17만5000달러 상당이다.

이는 올해 4번째이자 통산 10번째로 총 210만 달러의 수출을 달성한 것으로, 미국 온라인 식품시장에서 전남 브랜드관이 K-FOOD 전문매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을 증명한 셈이다.

전남 브랜드관에선 지역 대표 수산물인 김과 전복, 해조류, 해산물 스낵과 함께 농산물 가공식품인 고추장, 유기농 표고, 매실·배·유자주스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가운데 다압매음영농조합법인의 매실즙과 매일식품(주) 고추장, 완도세계로수산의 모듬해초, 정남진장흥매생이(주)의 건조매생이 제품은 모두 팔려 이번에 추가로 선적했다.

서진도농협의 울금분말, 농업회사법인 구례삼촌의 건나물, (주)남도농산의 자몽콤부차 등 5개 제품은 미국 현지에서 제품의 시장성과 경쟁력 검토를 거쳐 새로 입점했다. 현지 고객의 만족도를 한층 높일 전망이다.

브랜드관 입점기업인 (유)완도세계로수산의 김민숙 대표는 "모듬해초 샐러드 제품이 아마존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다른 국가 수출 확대를 위해 마케팅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존 입점을 통한 직접적인 매출도 늘었지만, 아마존 입점을 확인한 제3국 바이어로부터 많은 수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미국의 까다로운 통관조건과 아마존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식품이 판매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내외 바이어와 소비자에게 마케팅 포인트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진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도내 기업이 아마존이 제시하는 식품 수출과 판매기준을 충족한다면, 미국은 물론 제3국에 수출할 기회는 더 많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영세 농수산식품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아마존 입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